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16장 이같이 너희 빛을 비추어라

『산상설교』 상권 제16장, 인쇄 214~225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13~16 (주로 5:16. 스캔본에 이 장의 마지막 한 쪽인 인쇄 226쪽이 없어 225쪽까지만 정리했다)

> ❓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굳이 드러내야 하나? 드러낸다면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드러내지?**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주님이 소금과 빛이라는 긍정의 말씀에 “맛을 잃으면”,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부정의 말씀을 덧붙여 같은 진리를 거듭 강조하셨다는 데서 출발한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왜 소금과 빛이어야 하는지를 세 단계로 설명한다. 그렇게 되도록 지음받았고, 숨기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모순이며, 맛 잃은 소금처럼 완전히 쓸모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어서 어떻게 빛을 유지하는지를 등잔의 두 요소로 설명한다. 기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것이고, 심지는 팔복을 날마다 상기하며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6절의 '이같이'에 주목한다. 자기를 드러내는 흥행이 아니라, 자아를 비우고 세상을 향한 연민으로 살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절별 정리

📜 1. 주님은 왜 같은 말씀을 거듭 강조하셨나

로이드 존스는 14·15장에서 다룬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긍정의 진술을 다시 짚는다. 주님은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부정의 명제로 한 번 더 강조하셨다고 본다. 그 요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언가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보여 주고,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들'이라 부르며 빛과 어둠의 대조를 늘 사용한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산상설교를 미래의 어떤 세대에 살 일부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것으로 보는 세대주의(성경 역사를 여러 시대로 나누고 산상설교를 지금 교회가 아닌 다른 시대의 법으로 보는 해석)가 크게 어리석다고 말한다. 사도들의 서신은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정교하게 풀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소금과 빛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며, 왜 그래야 하는지부터 따져 보자고 한다.

1. 긍정 진술에 부정 진술을 더해 거듭 강조하셨다
2. 하나님은 우리를 '무언가 되도록' 만드셨다
3. 이것은 성경 전체와 신약 서신의 요지다
4. 그러므로 세대주의식 해석은 어리석다
5.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유를 따져야 한다

> **마태복음 5:13~16**
>
> 긍정 진술과 부정 진술이 함께 나오는 설교 본문
>
>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 **베드로전서 2:9**
>
> 택함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데 있음
>
>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 **빌립보서 2:15~16**

>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 생명의
>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 2. 첫째 이유: 그렇게 되도록 지음받았고, 숨기는 것은 모순이다

주님의 첫째 요지는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 것이고, 빛의 목적은 빛을 주는 것이다. 등불은 집 안 모든 사람을 비추려고 켜며, 다른 목적은 없다. 이것은 너무 자명하지만,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이 본질적 기능을 얼마나 쉽게 잊는지 생각하면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말한다. 둘째 요지는 이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모순이고 우스꽝스럽다는 것이다. 산 위의 동네는 숨겨질 수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과의 대조가 분명해서 숨겨질 수가 없다. 주님은 불을 켜서 말(곡식을 되는 그릇) 아래 덮는 사람을 상상해 보라고 하신다. 로이드 존스는 옛 주석가들이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하느라 시간을 쓰다 우스운 결론에 이르기도 했다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빛을 덮는다는 사실뿐이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숨겨질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일부러 숨기려 하느냐”고 묻고 계신 셈이다.

1. 소금은 짜게 하고, 빛은 비추는 것이 본질이다
2. 등불은 비추라고 켜며, 다른 목적은 없다
3. 참 그리스도인은 숨겨질 수 없다
4. 켠 등불을 덮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모순이다
5. '말'의 정체보다 '덮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 **마태복음 5:14**
> 산 위의 동네처럼 그리스도인은 숨겨질 수 없음
>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 3. 셋째 이유: 맛 잃은 소금처럼 완전히 쓸모없어진다

논증의 마지막 단계는 기능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철저하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꽃과 대조한다. 꽃은 죽어도 퇴비로 쓸 수 있고, 다른 많은 것도 본래 기능이 멈추면 다른 용도를 찾는다. 그러나 짠맛 잃은 소금은 퇴비 더미에도 던질 수 없다.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내버려 밟히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빛도 비추는 자질 하나뿐이어서, 그것을 잃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로이드 존스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보다 쓸모없는 것은 우주에 없다고 말한다. 바울이 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세상에도 교회에도 속하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이며,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처럼 결국 문 밖으로 쫓겨난다. 역사도 이것을 증명한다. 어거스틴 등 초기 교회의 거물들을 배출한 북아프리카 교회는 맛과 빛을 잃자 글자 그대로 밟혀 사라졌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서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박해를 피하려고 신앙을 덮으려는 경향을 발견하면, 정말 빛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을 건네는 손이 마귀의 손임을 알아야 한다.

1. 죽은 꽃은 퇴비가 되지만, 맛 잃은 소금은 해롭다
2.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가장 쓸모없다
3. 세상에도 교회에도 속하지 못한 채 소외된다
4. 북아프리카 교회는 빛을 잃고 밟혀 사라졌다
5. 숨기고 싶다면 내가 빛인지 점검하라

> **마태복음 5:13**
> 맛 잃은 소금은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경고
>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명목상 신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마태복음 25장

그런 자들이 최종적으로 쫓겨나는 비유들

[1]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3]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6]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

"그 '말(bushel)'을 제공하는 음흉한 손은 '마귀의 손'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 4. 어떻게: 등잔의 기름,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기

이제 로이드 존스는 실제적인 질문으로 넘어간다. 소금과 빛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어떻게 확실히 할 수 있는가? 그는 먼저 여행 중 짠맛 잃은 소금을 실제로 봤다는 주석가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교리 대신 용어만 연구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일축한다. 주님의 목적은 그런 상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 주는 데 있다. 더 분명한 실례는 등잔이다. 등잔에는 기름과 심지 두 가지가 필요하다. 어떤 학자는 기름만, 어떤 학자는 심지만 말하지만 둘 다 있어야 빛이 난다. 열 처녀 비유가 이를 기억하게 해 준다. 기름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팔복의 요점도 이것을 강조한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 것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가"이다. 성령의 사역도 방언 같은 흥분되는 특정 은사가 아니라 생명과 더 [illegible]

받아야 할 공급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름(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거룩함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도 채워지면서 계속되는 것이다. 산 위의 동네 같았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 보면, 그들은 최종 체험 하나에 기대지 않았다. 기도와 성경 연구와 묵상에 몇 시간씩 쓰며 기름 공급을 멈추지 않았다.

1. 등잔에는 기름과 심지가 둘 다 필요하다
2. 기름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3. 성령의 목적은 흥분되는 은사보다 생명이다
4. 생명은 '단번에'가 아니라 늘 받는 공급이다
5. 기도·말씀·묵상으로 기름을 계속 채운다

> **마태복음 25:1~13**
> 열 처녀 비유로 기름의 절대적 중요성을 보여 줌
>
> 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6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

> **요한복음 8:12**
> 우리가 빛인 것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 때문
>
>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에베소서 3:17~19**
>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구한 바울의 기도
>
>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고린도전서 12:31

성령이 주시는 '더 큰 은사'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7:37 · 요한복음 6:35

“내게로 오라”는 생명수·생명의 떡 초대는 계속 응답해야 할 공급

요한복음 7: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6: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6

채워지면서도 계속되는 주림과 목마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것은 우리가 늘 다시 되풀이해야 할 공급인 것입니다.”

📜 5. 어떻게: 심지 손질, 팔복대로 세상과 다르게 살기

기름만으로는 등불이 밝게 유지되지 않고 심지를 계속 손질해야 한다. 심지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빛이 나지 않는다. 로이드 존스는 이 손질을 팔복을 날마다 상기하는 일로 푼다. 아침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되새기는 것보다 나은 심지 손질은 없다. 상기에 그치지 않고 팔복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은 팔복과 반대되는 것을 피하고 세상과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피하려고 세상과 최대한 가깝게 사는데,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비극이며 용어상의 모순이라고 한다. 빛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멋진 일”이라고 말하면서 지저분하고 지각없이 사는 신자들을 꾸짖는다. “몸가짐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속담처럼 말과 품행이 우리가 누구인지 선언한다. 그는 국제화 때문에 오늘의 신자가 이전 세기보다 더 큰 기회를 가졌다고 본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면밀히 지켜본다. 남의 무례에 불끈 화내는지, 전쟁과 재난과 전염병 앞에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안달하는지를 본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

1. 심지 손질은 팔복을 날마다 상기하는 것이다
2. 상기에 그치지 않고 팔복대로 살아야 한다
3. 빛과 어둠 사이에 중간 지대는 없다
4. 말과 품행, 예의가 우리 정체를 선언한다
5. 무례와 재난 앞에서 다르게 반응하라

> **마태복음 5:3~10**
> 날마다 상기하며 따라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팔복)
>
>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 **마태복음 5:5 · 마태복음 5:9**
> 온유와 화평이 남의 무례에 대한 반응의 기준이 됨
>
> **마태복음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
> **마태복음 5: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빛과 어둠 사이에는 중용과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 6. '이같이': 자아를 비우고 연민으로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로이드 존스는 마지막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빛은 올바른 방법으로 비추어야 하며, 16절의 '이같이'가 그 위대한 말이다. 착한 행실을 보이되 흥행적 태도(showmanship), 곧 자기에게 주목을 끄는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설교할 때나 복음을 들을 때나 마찬가지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은 자아를 잊는다. 자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워지고 산산이 부서져야 한다. 목표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은 어둠과 오염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마음 깊이 슬퍼해야 한다. 주님이 무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보고 불쌍히 여기셨듯이, 모든 것의 기초를 그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에 두어야 한다. 주님이 이적을 베푸시면 사람들이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매사에 다를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묻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때 그들이 내릴 수 있는 해석은 하나뿐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사체라고 말하며 설교를 맺어 간다. 이 뒤의 마지막 한 쪽은 스캔본에 없다.

1. '이같이', 곧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2. 착한 행실에 흥행적 태도가 있으면 안 된다
3. 자아는 비워지고 하나님만 높아져야 한다
4. 기초는 세상을 향한 슬픔과 연민이다
5. “왜 저렇게 다를까” 묻게 하는 삶이어야 한다

> **마태복음 5:16**
> 착한 행실의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
>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 **마태복음 5:3 · 마태복음 5:5**
> 가난한 심령과 온유함 안에서 자아가 잊힘

마태복음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9:36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연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가복음 2:12

이적을 본 무리가 “이런 일을 본 적 없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로마서 8:17

사람들이 알아볼 우리의 정체,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세대주의

성경 역사를 여러 시대(세대)로 나누고, 산상설교를 지금 교회가 아닌 다른 시대의 규범으로 보는 해석이다.

말(bushel)

곡식의 양을 되는 그릇으로, 본문에서는 등불을 덮어 빛을 가리는 것을 뜻한다.

이름과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 생명과 역할이 없는 사람이다.

경건의 모양과 능력

겉으로 보이는 종교 형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 변화의 힘을 대조하는 말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름

하나님과 바르게 되고 거룩해지기를 배고픈 사람처럼 간절히, 계속 갈망하는 것이다.

팔복

마태복음 5:3~10에 나오는 여덟 가지 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을 그린다.

흥행적 태도(showmanship)

신앙이나 선행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끌려는 태도다.

<details>
<summary>• 점검 질문</summary>
</details>

<details>
<summary>💬 청년의 삶으로</summary>
</details>

<details open>
<summary>✅ 이 장의 결론</summary>

-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이 되도록 지음받았고, 그 빛을 숨기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모순이다.
- 기능을 잃은 이름뿐인 신앙은 맛 잃은 소금처럼 완전히 쓸모없어지고 결국 밟힌다.
- 빛을 유지하려면 기름(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음)과 심지(팔복대로 세상과 다르게 삶)가 함께 필요하다.
- 빛은 '이같이', 곧 자아를 비우고 세상을 향한 연민으로 비추어야 한다.
- 그 목적은 사람들이 우리 안의 그리스도를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details>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